

만남



영락이여, 올라가라

(사사기 1:1~2)



표지설명

생전 한경직 목사님은 전쟁 속에서 장애가 있는 고아 복순이를 잃어버린 것을 깊이 슬퍼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생명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4월 목회력

- 05 금 ·연합권찰모임
- 07 주일 ·찬양예배 성찬
- 19 금 ·한경직 목사 추도예배
- 24 수 ~ 26 금 ·산상기도회
- 28 주일 ·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 사회봉사주일

- 06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14 주일 ·제직회
- 19 금 ~ 27 토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 26 금 ·심방준비회

만남

2024년 4월호
통권 602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부활은 자유입니다 김운성

특집 한경직 목사가 남긴 사랑

- 05 그 사랑에 빛진 자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 08 인재 양성의 씨앗 든든한 뿌리가 되다
- 09 한경직 해외유학 장학생 간증 박동진, 정의진
- 12 화보 선한 사마리아인의 발걸음을 따라
- 16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의 현장 최윤미, 이현지
- 22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박위

영락칼럼

- 24 세속화 시대 ‘거룩한 구별됨’ 절실 조두형
- 26 희망 잃은 현대인, 성경으로 돌아가라 소남호

다음세대 / 청년광장

- 29 ‘하늘가족’을 아십니까 소년부
- 30 테니스 치며 세대 장벽 허물죠 신승원
- 32 읽고...뛰고...오르고...fun한 청년들 청년부

만남 그리고 사람들

- 35 이양례 은퇴집사의 교회 봉사 오는 길 인미
- 38 호흡이 다할 때까지 말씀과 동행하신 성도님! 이아미

땅끝까지 이르러

- 40 V국 찾아온 친절 같은 영락식구들 고재영
- 42 태국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주시원

영락의 울타리

- 46 교사를 목회자로...천직 주신 뜻 이태규
- 48 한경직복음학교 수료 간증 이정애, 이나리
- 53 기도문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쉬을 얻게 하소서 장재기
- 54 시련을 축복으로...회복탄력성의 힘 고운숙

교회소식

- 57 부활, 생명의 복음! 부활주일예배와 음악예배 외
- 68 자선, 그 심오한 연민과 헌신 정재원
- 69 영락시어터 4월 상영 영화



부활은 자유입니다

김 운 성 위임목사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1~2)

‘어이, 훌륭해!’ 찬장이 외쳤다. ‘많은 땅을 차지했군!’ 뱀흠의 일꾼이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뱀흠은 입에서 피를 쏟으며 옆드러져 죽었다. 바시끼르인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다. 일꾼은 삽을 들고 뱀흠의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뱀흠은 정확하게 머리에서 다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2미터가량의 무덤에 묻혔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중에 나오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뱀흠은 작은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기쁨에 겨워 달리기 시작하던 날 아침에 이미 그의 영혼은 땅에 대한 욕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라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무덤은 죽은 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품는 순간 이미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무덤이라 불리는 좁은 욕망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과제가 됩니다.

알프레드 에더스하임(Alfred Edersheim)은 19세기에 살았던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 학자이자 목사입니다. 그는 유대인 회당에 딸린 유대 학교에서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했고, 기독교인이 된 후 에든버러와 독일에서 공부했으며, 1846년부터 장로교 목사로 일했습니다. 말년까지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섬겼는데, 당대 비전할 인물이 없을 정도의

예수님의 부활은 매이지 않는 자유 그 자체 욕망이란 무덤 벗어나 사랑으로 훨훨 날아야



성경학자요, 교회사가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1876년에 펴낸 『유대인 스케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삶과 환경에 대해 1차 사료에 입각해 저술한 대단한 저서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땅을 ‘그 땅’이라 부르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땅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히브리 문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랍비 요나단이 제자들과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런데 위쪽에 달려 있던 농익은 열매가 갑자기 터지더니 달콤한 즙이 바닥으로 주르르 쏟아졌다. 또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암염소의 불대로 분 젖이 푹푹 흘러내렸다. 그 두 줄기가 하나로 섞이는 것을 지켜보던 랍비가 외쳤다. ‘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광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쉐키나(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는 오직 팔레스타인에만 있다” “팔레스타인의 공기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것만으로도 모든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맞먹는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이스라엘 땅에 묻힌 자는 제단 아래 묻힌 것과 같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서는 평화와 행복의 웃음소리 대신 참혹한 전쟁 소식만 들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마스에 의해 무참하게 폭행당하고 살육되었는지 듣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여러 달이 지나도 멈출 기색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떠나려던 성지 순례는 모두 중단

되었습니다. 이미 그 땅은 성지가 아닙니다. 폭력과 전쟁의 땅으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갇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욕망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갇혀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갇힌 곳이 아니라, 위대한 부활을 위한 전초기지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흘 후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무덤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다락방에도 나타나셨고,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자유를 보이셨습니다.

부활은 자유입니다. 얽매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선 욕망 때문에 갇히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갇힌다면 사랑 때문에 갇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사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무덤 같은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 훨훨 날아야 합니다. 그 자유가 나중에는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터전이야말로 성지입니다. **만남**



한경직 목사가 남긴 사랑

‘냉수 한 그릇(마가복음 9:38~50)’

냉수 한 그릇을 목마른 이에게 주는 것은 하나의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작은 일을 한 이들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동포들에게 냉수 한 그릇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습니다.
큰 봉사는 못 하지만 냉수 한 그릇의 봉사는 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작은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 1975년 12월 21일 주일예배 설교, 『한경직목사 설교전집』 중에서

그 사랑에 빛진 자

한경직목사기념주간 행사 4월 19~27일 열린다

예배, 전시회, 한경직상 시상식 등 진행

2024 한경직목사기념주간 행사가 ‘그 사랑에 빛진 자(요한복음 3:16)’라는 주제 아래 4월 19일(금)부터 27일(토)까지 진행됩니다.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 드렸던 한경직 목사 추도예배를 영락동산 묘역에서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기념주간 전시회를 비롯하여 기념예배 및 ‘한경직상’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경직상’은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을 후세에 기리고 이어가고자 초교파적으로 교육·선교·봉사 부문에 본이 되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2021년~2023년 내 우수 기관의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경직상’ 수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심사결과 ‘2024 한경직상’ 수상자로 송광옥 선교사(예장 통합 인도네시아 파송선교사)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추도예배

4월 19일(금) 오후 2시 영락공원묘원(영락교회 출발 오후 1시)

기념예배 및 한경직상 시상식

4월 21일(주일) 오후 5시 영락교회 본당

기념주간 전시회

4월 19일(금)~27일(토) 한경직목사기념관 특별전시실

템플턴상 영상 등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 조명

2024년 한경직목사기념주년을 맞아 사진과 전시물, 영상을 통해 30년 전 한경직 목사의 템플턴상 수상 여정(독일, 영국, 미국, 한국)을 따라가 보며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을 되짚어 보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 사랑에 빚진 자(요한복음 3:16)’라는 큰 주제 아래 템플턴상 수상 여정 중 한경직 목사가 전한 메시지들(독일-수상 연설문, 미국 ‘가장 보람 있는 삶’ 한국-감사 인사말)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템플턴상은 종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자 미국의 사업가 존 템플턴이 1972년에 재단을 설립하고, 1973년에 마더 테레사에게 처음 수여했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은 특별

히 인류를 위해 영성에 공헌하거나 개척자적인 일을 한 사람을 발굴해 세상에 알리고 그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92년 수상할 때엔 한국에서뿐 아니라 한경직 목사 자신조차도 생소했던 템플턴상이었지만, 당시 한경직 목사를 선정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템플턴상장과 기념메달



1 1992년 4월 29일 베를린 사우스 필 하우스에서 열린 템플턴상 수상식 장면

2 수상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한경직 목사

“한경직 목사는 20세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이
다. 신자 6만 명의 영락교회가 세계 최대의 장로교 공동
체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북미 등 전 세계에
5백여 개의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한 목사
의 비전과 줄기찬 노력에 의한 이 같은 업적은 지금까
지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이미 한경직 목사를 ‘한국 기독교
를 부흥시킨 목사(The Reverend Who Reinvigorated
Christianity in South Korea)’로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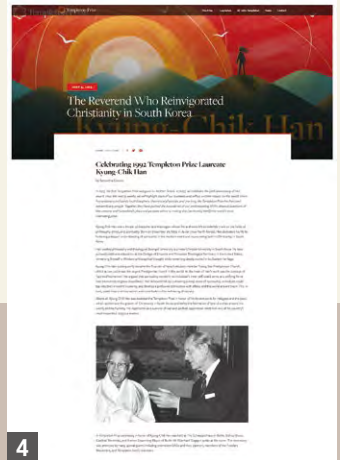
2023년 템플턴상 50주년을 기념해 템플턴상 홈페이
지(www.templetonprize.org)에는 53명의 템플턴상 수
상자를 52주 동안 조명하고, 그들이 세계에 미친 영향
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수상자 각각의 페이지를 제작해

올려놓았습니다. 템플턴상 홈페이지에는 기존 수상자
페이지 외에 50주년을 기념하는 1992년 20번째 수상자
한경직 목사의 페이지가 2023년 6월 9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사진4) 템플턴상 50주년 기념 페이지의 내용
도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템플턴상 수상 여정에 동참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만남**



3



4



- 3 영국 런던 버킹엄궁을 방문, 엘리자베스 여왕 부군
필립 공과 함께(1992년 5월 7일)
- 4 템플턴상 홈페이지 안에 올라온 한경직 목사 페이지
(QR코드 스캔하면 한경직 목사 페이지로 이동)



인재 양성의 씨앗 튼튼한 뿌리가 되다



1982년 한경직장학생들과 함께. 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김운성 위임목사

한경직 목사가 남긴 큰 사랑의 유산은 소외되고 작은 자들을 위한 섬김과 기독교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표된다. 청년 시절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유학을 했던 그의 체험은 훗날 기독교학교 설립과 장학사업이 열매를 맺는 데 든든한 뿌리가 되었다.

1973년 지금의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경직목사기념사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장학사업이 시작됐다. 1975년에 첫 ‘한경직 장학생’으로 일반 전공 대학생 3명을 선정했으며, 1976년부터는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수여를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이바지할 후속세대 목회자 양성이라는 취지 아래 장신대 신대원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다.

1981년 한경직목사기념사업위원회 조직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공식명칭을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로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장학사업을 활발히 시작

했다. 특히 이 시기에 선발된 신학생 중 다수가 현재 한국교회 중진 목회자,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사로 우리 교회 김운성 위임목사를 비롯하여 김명용 장신대 전 총장, 서정오 동송교회 원로목사, 안교성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한경직 장학금’은 큰 변화를 맞이한다. 1994년까지 진행된 국내 장학사업을 중단하고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유학 중인 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해외 장학생을 선발, 1년에 미화 2만 불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한편 1995년부터 중단된 국내 장학생 선발은 2010년 오만순 장로(작고)의 장학기부금으로 2011년부터 재개되었다. 매년 장신대 신대원 학생과 숭실대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경직 장학금으로 혜택을 받은 학생은 총 131명(국내 117명, 해외 14명)에 달한다. **한남**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살롱,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모든 분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느새 겨울의 한가운대를 지나면서, 밀물같이 파고드는 봄이 이곳저곳에서 한 계절을 몰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봄같이 역동하는 주님의 생명 역사가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의 몸과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영성수련원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 관심 커져

저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낙스칼리지에서 기독교영성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올해 초부터 대덕교회(유재경 목사 시무)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영락수련원(영락교회 영성센터)을 설립할 때부터 유학 가기 전까지 대략 5년 동안 이곳에서 섬기면서 성도들을 더 깊이 있게 섬기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영락수련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워주려는 영락교회의 목회적 비전과 예지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련원에서의 영성사역은 확고한 개혁교회의 전통과 신학 위에 세워져, 한국 교회의 커지는 영적인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를 위한 탁월한 영성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센터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섬기면서, 저는 하나



박동진 목사
대전 대덕교회
前 영락교회
부서담당목사

님과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열망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유학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에, 결정하기 전 한 달동안 깊이 기도

하며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부르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도를 통한 내적 확신을 얻은 후에 받게 된 ‘한경직 해외유학 장학생 장학금’은 제가 학업을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외적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저와 제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경직 해외유학 장학금 든든한 울타리 돼

유학 생활 4년은 목회 현장과 영성사역을 더 깊게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풍성한 원문 자료를 통해 기독교 영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뛰어난 학자들과 영적 지도 전문가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제게 큰 특권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코스웍 과정 중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강의조교와 연구조교(Teaching Assistance/Research Assistance)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은 여러모로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낙스칼리지의 졸업반 필수과목인 ‘목회 통합(Pastoral Integration)’은 큰 의미가 있었는데, 목사 후보

생들의 과업을 돕고, 평가하고, 할당된 분량을 강의하면서 장로교회의 목회적 영성실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또한 초기 한국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캐나다 장로교회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4년여 영성사역 경험...충성된 종으로 살 것

이와 같은 학문 여정의 유익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가족은 유학 생활 동안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 지도교수님의 갑작스러운 이직 등이 우리 가족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한경직목사기

념장학회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하나님 은총의 통로였습니다. 장학회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학회의 기도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학문적 탐구 시간과 사역 경험이 서로 좋은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신 사랑의 손길 잊지 않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외된 이웃,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2020년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장학사업을 통해 해외유학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던 정의진 목사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넘어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지도자인 추양 한경직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교회와 민족을 섬기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에 부족한 제가 선정되는 영광과 도움을 받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사업이 얼마나 뜻깊은 취지에서 진행됐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커다란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었지만, 한경직 목사님처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아름다운 삶과 고귀한 정신을 조금이라도 더 흉내내고 닮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오늘도 마음을 다잡고 노력해 봅니다.



정의진 목사
서울 약수교회
前 영락교회
대학부 학생회장

기독교 신앙 가르쳐주고 인생 바꿔준 영락교회

영락교회는 저의 모 교회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주고 인생을 바꿔준 참 소중한 교회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저의 어린 시절, 서울 변두리 지역의 규모가 작은 성결교회를 혼자 출석하다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친구의 인도로 영락교회 중등부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당대 신앙인입니다. 특별히 중학교 3학년 영락기도원에서 진행된 중등부 여름수련회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큰 은혜를 받고 주님께 회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고등부 시절에는 일어성경반에서 활동했고, 대학생 시절에는 후암동에 있는 '영락애니아의집'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학사장교로 입대하기 전에는 대학부 89대 학생회장으로 섬기는 소중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출석하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한경직 목사님의 고결한 삶과 정신을 배우고, 경건한 수많은 성도님을 만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부 시절 해외 단기선교팀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났던 자매가 지금의 제 아내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통해 덩으로 주신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힘들었던 유학생할 단비 같던 한경직 장학금

미국 북가주 버클리 지역에 소재한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기독교역사 전공으로 박사과정 1년 차를 마칠 무렵 둘째 아이 유하가 후천적 급성 안검하수 증상을 보이며, 여러 복잡한 희귀 근육병, 신경장애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탈진할 정도로 힘들고 영적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제공되는 단비 같은 도움이 계속해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박사논문 제목은 「20세기 동아시아의 두 명의 성자가 보인 선교 사역 차이: 한경직 목사와 카가와 도요히코 목사 비교 연구(Two Saints with Distinct Approaches to Missions in Twentieth-Century East Asia: A Comparative Study on Rev. Kyung-Chik Han and Rev. Toyohiko Kagawa)」입니다. 20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일본의 카가와 도요히코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선교를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논문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구술시험을 통과하여 올해 10월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락교회에서 멀지 않은 서울노회 소속 약수교회에서 교구와 위원회 사역을 담당하는 전임 부목사로, 귀한 여러 교역자와 성도님들을 통해 목회를 성실히 배우고 있습니다.

자격이 부족한 저에게 지금껏 과분한 사랑과 도움을 주신 한경직기념사업회 관계자분들과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롬! **만남**



선한 사마리아인의 발걸음을 따라...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에서도 거두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 한경직 목사 구술 자서전 『나의 감사』 중에서

1. 사회복지사업의 태동

1940년대



❶ 1941년 신의주 보린원 전경. '이웃을 보살핀다'는 뜻에서 보린원이라 이름 지었다.

❷ 1947년 6월 남신의주에서 보린원 설립자 총회를 마친 후

❸ 1948년 서울시 후암동 보린원 원생 및 후원자들과 함께

2. 한국전쟁과 전후(戰後) 구호

1950년대



- 1 1951년 12월 국내 최초의 모자복지시설 다비다모자원 개원
(앞줄 좌측 네 번째가 한경직 목사)
- 2 1953년경 모자원생들이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모습
- 3 한국전쟁 직후 주한미군과 함께 전후 복구활동에 힘쓴
한경직 목사(1954년)
- 4 월드비전 공동 창립자 밥 피어스 목사와 함께
(1958년 창립 8주년 기념식에서)
- 5 영락보린원 어린이들과 함께

3. 사랑으로 세상에 빛을 밝히다

1960~1980년대



- ❶ 1960년대 스카우트 복장을 한 보린원 원생들
- ❷ 1965년 9월 경기도 하남 영락경로원 예배당 봉헌식 후
- ❸ 1979년 12월 보린원 성탄예배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 ❹ 1985년 5월 영락모자원 신축 기공식에서

4. 작은 나눔 뿌리가 튼튼한 나눔 나무 되어...

1990년대~



- 1 1990년 한경직 목사의 주도로 시작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 2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보육사업(합설어린이집)
- 3 남산 자락에 위치한 영락보린원 전경. 올해로 개원 85주년을 맞는다.
- 4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노인복지사업(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의 현장

1938년 신의주의 겨울. 한경직 목사와 장애인 소녀 복순이와의 만남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작은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장애인 복지사역에서도 울창한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4월호에서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과 총회 지정 장애인주일(4월 21일)을 맞아 예수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영락애니아의집과 영락주간보호센터의 봉사현장을 소개한다.



쉽! 느낌! ... 애니아, 순수영혼들과 동행

설립 30돌 영락애니아의집 조지영 원장

영락애니아의집은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 시설로, 장애 아동들에게는 집과 같은 곳이자 생활의 중심이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은 기독교 사회사업을 펼쳐 온 단체로, 교회창립 50주년을 맞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제안을 받고 1994년 7월에 설립되었다. 애니아(Aeneas)는 '칭찬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도행

전 9장 33절에 나오는 중풍 환자이자 베드로 사도에게 고침을 받았던 인물의 이름이다.

신앙의 기둥이 돼 준 전임 원장님들 감사

조지영 원장은 애니아의집 개원 때부터 시작한 근무가 어느새 30년이 되었다고 회고한다. 그 당시에는 전문 청소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라서, 모든 직원이 건물을 청소할 정도로 지금보다 근무 환경이 훨씬 힘들었

다. 입사 당시 4~10세 중증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전임 원장님들의 믿음의 헌신과 기도 덕분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원장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이곳 아이들의 마음을 ‘스펀지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하나의 사랑을 주면 스펀지처럼 모두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200%의 사랑으로 화답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스펀지 사랑’ 받으며 감사 더해

애니아의 일상은 주일의 예배드림으로 시작된다고 조지영 원장은 전한다. 중증 장애 때문에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눈빛과 온몸과 영혼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주중에는 노원구에 있는 서울정민학교에서 교육과 재활(수중운동, 의사소통 교육, 일상생활 기능훈련) 훈련을 받는다. 정민학교에서는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의 재활 치료도 진행되며, 간호사 선생님은 일반 건강관리를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산책, 영화관람… 일상 체험 기회 늘릴 것

애니아의집이 위치한 용산구 후암동은 서울 중심부로 교통이 편리하며, 남산과 한강공원도 가까워 문화적 환경도 좋다. 2023년에는 ‘문화가 재미있는 우리 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했다. 일상의 평범한 삶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일대일 또는 3~4명의 그룹을 이뤄 카페 가기, 산책, 영화관람, 놀이공원 방문 등을 통해 행복한 일상을 만들었다.

2024년에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애니아 가족들이 10~20대가 누리고 싶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꽃 피는 봄을 누리는 소풍과 산책, 영화관 나들이, 카페 분위기를 즐기는 경



험 등을 계획 중이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로 각자의 요구사항을 발견하고, 애니아 가족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자 한다.

40명이 중증장애인 30명 24시간 케어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돌봄 교사 24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료사, 영양사, 시설 관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16명의 직원이 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에서는 두 분의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변한 데다 교대 근무 조건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 큰 어려움이다. 이용자를 24시간 내내 돌봐야 하고, 간호 관련된 일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다. 특히 교대 근무로 인해 젊은 세대의 지원이 더욱 부족하다.

무연고 장애인 울타리 돼줄 분들 필요

애니아의집에 거주 중인 이용인 중 2/3가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장애인이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의 자녀도 20%나 된다. 이들은 영락 성도들에게는 가족이고 지인이다. 조지영 원장은 매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중점 기도 제목을 확인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무연고 장애인 위탁가정 연계를 통해 한 명의 친구가 되어주고 1년에 3~4차례 만나는 등 일대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봉사 요청은 서울정민학교로 통학하는 5명의 점심 식사(월~금, 12~13시) 지원이다. 가능하다면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돌봄 교사들과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원내 산책 도우미 등 단순 노동 봉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산책이나 외부 활동 시간에 휠체어를 밀어주는 일손도 필요하다.

서울정민학교 통학자 점심 봉사손길 시급

정부 방역지침 강화 단계가 완화되지 않은 이곳은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법정 감염병 통제 기준이 완화되면 일반봉사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그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조원장은 계속되는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한 봉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공지를 확인하시고 남녀선교회, 소그룹, 교구와 구역,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정기적인 봉사로 도움 주시기를 부탁했다. 또한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영락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취재 | 최윤미 기자



“애니아의집 장애인 가족들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심을 저희는 압니다. 장애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함께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은 시작됩니다. 애니아의 하루는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회 주간 기도 제목으로 매주 화요일 영락사회복지재단 산하 기관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락애니아의집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함께하는 이야기, 애사모’의 매월 기도 제목과 <따뜻한 만남, 마음이음>의 연 2회 소식지, ‘후원 안내, 후원 방법’ 등을 참조하여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세요.

▷ 영락애니아의집 홈페이지 www.ynaeneanet

▷ 후원 절차가 간편해졌어요.

<https://www.ihappynanum.com/Nanum/B/F7Q0XKVM5>





생활과 신앙의 '자립' 도와드려요

개원 15년 영락주간보호센터 문소현 센터장

우리 교회 교육관 1층에 있는 영락주간보호센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보호소다. 이 센터는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속해 있으며, 자폐증이나 지적장애, 뇌 병변 등 심각한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현재 11명의 발달장애인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5명의 사회복지사가 이용인들을 돌본다. 문소현 센터장은 “이용인 중 60%가 영락교회 교인으로, 부모님도 함께 영락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밝혔다. 평일에는 영락주간보호센터가, 주일에는 사랑부가 이들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 11명, 복지사 5명이 밀착 케어

영락주간보호센터의 가장 큰 목표는 이용인들의 '자립'이다. 이들 대부분이 20~40대로 청장년기에 해당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부모님은 이미 노년층(대체로 60~70대)을 향하고 있다. 일반적인 생애주기로 따지자면 사회활동을 시작하여 부모를 돌보기 시

작하는 시기지만,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는 제자리에 멈춰있다. 나이가 들어도 발달장애인 자녀는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센터는 이용자들이 사회에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용인 대부분 30대…부모는 60~70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일상생활,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이나 간단한 요리조차도 큰 도전이다. 특히 점차 늘어나고 있는 키오스크, QR코드, AI 음성인식 같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일상의 편리를 위한 도구가 발달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된 적이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용인들과 함께 지하철 타기, 카페에 가기 등을 연습한다. 또한, 감정의 정확한 전달 능력도 부족하므로 연극이나 합창 수업을 진행해 감정을 표현하는 재활교육도 한다. 이를 통해 이용인들은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필요한 예절을 배우고 있다.

대중교통, 키오스크… 일상 생활 자체가 큰 도전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문소현 센터장은 이를 ‘평생 해야 할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인은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은 끊임없는 돌봄의 대상이다. 영락주간보호센터의 명칭은 주간보호센터지만, 10년 또는 평생을 내다보며 노력하는 곳인 셈이다.

매주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 자립 도와

영락주간보호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자립’뿐만 아니라 ‘신앙 자립’도 돕고 있다. 문 센터장은 ‘이것이 우리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좋은 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교회 안에 있는 센터라는 점에 안정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기독교인이 아닌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문 센터장은 “대형 교회의 지원과 장소 제공이라서 부모들이 신뢰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교회

에서 주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이용인들은 자발적으로 기도도 한다. 교회 안에 있으므로 이용인들과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도 하다. 매일 아침 10시에는 이용인끼리 예배드리며, 목요일 아침에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린다. 언어가 가능한 이용인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식사 시간에는 자발적으로 식사 기도도 한다. 이와 같은 예배 문화는 전적으로 영락교회 안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문 센터장은 강조했다.

정부가 영락주간보호센터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타 비용은 센터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센터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영락교회의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이용인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 영락교회 외에도 광림교회, 소망교회, 영동교회 등도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약자를 돌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선교로 느끼게 된다.



15년간 무사고...센터, 기도가 많이 쌓인 곳

문 센터장은 센터 운영 중에 가끔 도전적인 순간이나 무거운 책임을 느낄 때 신앙으로 극복한다고 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센터에서는 이용인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다. 하지만 영락주간보호센터에서는 15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이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하나님께서 센터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보호하시고 책임져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간증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으로서는 삶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인연을 보내주시며 그들을 돌보신다고 덧붙였다. 2016년 영락주간보호센터에 온 문 센터장은 “이곳은 오래전부

터 기도가 정말 많이 쌓여 지어졌다는 것을 느낀다”라며 8년여간의 소감을 전했다.

2009년 시작하여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영락주간보호센터는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영락교회 성도 중에도 센터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문 센터장은 이용인과 마주치면 이름을 물어보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들은 누군가가 이름을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센터라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혹시 기억나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 두드려 달라”라고 말했다. **안남**

취재 | 이현지 기자

2024년 영락사회복지재단 어깨동무후원자 모집

“작은 이에게 냉수 한 그릇의 작은 봉사를”

영락사회복지재단이 4월 28일(주일) ‘2024년 어깨동무후원자 모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소자와 작은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의 작은 봉사를 아끼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영락교회는 1953년 후원회를 조직하여 71년간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어깨동무 후원자 모집 캠페인’을 통해 이 정신을 이어오고 있으며 영락교회 성도들은 어깨동무후원 가입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인 후원금은 15개 시설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4월 28일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 일시 : 4월 28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

○ 장소 : 영락교회 베다니광장

○ 내용 : 신규 후원 가입 및 저금통 수거

※ 개인, 법인단체는 법인세법 24조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지정기부금에 의하여

개인(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법인(사업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We+Miracle>

28살 청춘의 봄날, 사고로 전신마비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28살 청춘의 봄날, 나는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꿈이 아니었다.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대로 모든 것이 멈추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정면돌파하기로 결심했다. ‘전신마비? 내가 앞으로 걷지 못한다고? 아니, 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죽을 힘을 다해 재활하다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적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재활병원에서 퇴원 후 내가 극복해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았다. 옷을 입고 벗는 것, 밥을 먹는 것, 대소변을 처리하는 것, 심지어 아침에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28세의 건장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된 것이다. 나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다.



박 위 성도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유튜브 위라클 크리에이터
『위라클』 저자
온누리교회 SNS청년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노력하기 시작했다.

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한강에 나가 휠체어를 밀며 운동했다. 휠체어를 스스로 분리해서 차에 넣기 위해 땀을 흘리며 연습했다. 처음엔 한 시간도 더 걸렸지만, 차차 나아져 1분 안에 휠체어를 분리해 차에 실을 수 있게 되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좌약 넣는 것에도 성공했다. 그렇게 좌절과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리를 맛보기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희망을 전하다

재활병원에 6개월여 입원하는 동안 전신마비인 나를 부러워하는 환자의 어머니님과 대화를 많이 했었다. 그분의 아들은 뇌를 다쳤기 때문이다. 그때 병원 기도실에서 매일 밤 기도하면서 ‘퇴원하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다. 하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스탠드에 불이 켜지듯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 바로 유튜브 영상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명은 내 이름이자 ‘우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We’와 기적을 뜻하는 ‘Miracle’을 합쳐서 <위라클 WERACLE>로 지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미 기적





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의미도 전달할 수 있는 중의적 의미의 이름이었다. 나의 소소한 일상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많은 이로부터 위라클 영상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는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오는 이들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용기를 전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자신을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욕을 되찾곤 했다. 그리고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주고 싶다고 결심한다고 했다. 그중 한 명이 위라클에서 4년간 편집자로 함께 한 진성이다. 나보다 더 심한 장애가 있는 진성이를 만나기 위해 혼자서 울산행 비행기를 탔고, 이후 위라클에서 함께 신나게 일했다. 이제는 <위라클>의 구독자가 72만이 넘다 보니 구독자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위라클>의 구독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꿈꾸며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고 있다.

‘당연했던 일상이 곧 기적’

나는 다치고 나서 오히려 일상의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진심이다. 과거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지만, 오히려 이런 불안정한 삶으로 인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전국을 다니며 강연과 간증을 하는 나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냐고 질문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연이나 간증할 때 늘 이 메시지를 강조한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기적입니다!”

온전한 다섯 손가락 있는 한…기적은 계속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교회 중등부에서 나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자주 오셨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위야, 책을 꼭 쓰자”라고 제안하셨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정말로 내가 책을 쓰게 되었다. 채널과 같은 이름으로 책 제목을 정했다. 『위라클』. 그리고 이 책의 독자들로부터 감동적인 사연을 계속 받고 있다. “죽으려고 했다가 작가님의 책을 읽고 살기로 했다” 이런 메일을 받으면 마비되지 않은 5개의 손가락으로 원고를 쓰느라 애쓴 보람이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작가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나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인도하실지 오늘도 기대가 된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만남**



세속화 시대 ‘거룩한 구별됨’ 절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열왕기하 17:33)

세속화와 혼합주의: 구별되지 않는 비성경적 그리스도인

로날드 사이더(Ronald J. Sider)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에서 각종 통계를 통해 이미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합니다. 그에 따르면 돈, 성, 이혼, 가정폭력, 인종차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견해와 태도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문화연구기관에서는 미국인의 92%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혼합주의(syncretism)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일곱 개의 세계관을 ① 성경적 세계관 ② 동양 신비주의 ③ 마르크스주의 ④ 이신론 ⑤ 허무주의 ⑥ 포스트모더니즘 ⑦ 세속적 인본주의로 나열하며, 이 세계관을 자신의 취향대로 취

사선택한 ‘맞춤형 세계관(customized worldview)’이 미국을 휩쓸며 오늘날 교회의 영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합니다.

인구의 약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문화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2023년 다음세대 특집: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30%)만이 ‘결혼이 필수’라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81%가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응답했고, 61%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대답했으며, 52%가 동성결혼에 찬성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 성경의 일관된 경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빌립보서 1:1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성경의 일관된 경고를 거칠게 요약하면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거룩함과 속됨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와 문화적 혼합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조두형 목사
선교전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힘은
언제나 ‘수량’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구별됨’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우상 숭배적 문화는 폭력과 힘을 추구하는 이집트 문화, 거짓 신들과 음란과 물질주의로 점철된 가나안 문화가 대표적입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의 제국주의, 유대인의 교조적 율법주의, 헬라인의 영지주의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각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의 지배적 문화에 결코 물들지 말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것을 당부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목소리,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여호수아 24:15)”라고 하면서 가나안의 우상숭배적 문화로부터의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양쪽 모두 섬기려 하는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질문에 침묵합니다.

신약의 목소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는 그 시대의 영웅담과는 정반대의 길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무시받는 나사렛 사람이었고, 제자들도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설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

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자체로 로마제국과 정반대 삶의 양식을 가진 대조문화 공동체였습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대한민국의 무신론자가 60%를 넘어섰습니다. 이 나라 10명 중 6명이 신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만약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양식의 근본적인 전제가 세속적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선포할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세상 그 자체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고 선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 예배와 안식일의 회복, 동시에 이미 그들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방인들과의 결별을 선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힘은 언제나 ‘수량’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구별됨’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문화적 격변을 사는 영락교회 성도님 모두가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희망 잃은 현대인, 성경으로 돌아가라

- 프란시스 쉐퍼와 라브리 공동체로의 초대



한 목사님이 어느 날 히피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사회와 자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께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악어와 파충류를 정말 싫어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징그러운 생물들을 만드셨을까요? 저런 생물을 만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이 질문은 조금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청년은 삶과 세상에 대해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 차례 전쟁 겪으며 인간의 지성에 큰 회의

이성과 지성에 큰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이 가져온 잔혹함과 황폐함을 보고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번영하기 시작했지만,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프란시스 쉐퍼 박사(Francis A. Schaeffer, 1912~1984년)는 성경의 관점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 통해 생명 예수님 만나게 해

신학자이자 목사인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어려운 시기에 철학 세미나와 영성 훈련을 위해 지난 1955년 6월 스위스에서 ‘라브리(L’Abri)’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라브리’는 프랑스어로 ‘피난처’나 ‘쉼터’를 뜻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인격적인 세계관을 나누며, 절망적인 현대 사회 속에서도 희망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남호 안수집사
종로·성북교구
홍보출판부 차장

현대인들 절대진리 잃고 상대적 행복만 탐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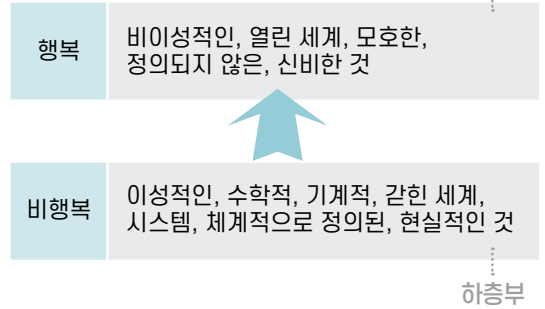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20여 권의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특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The God Who Is There)』, 『이성에서의 도피(Escape

from Reason)』,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 같은 책들은 험난한 파도와 같은 어려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쉐퍼 박사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적 사상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의지(will)는 타락했지만, 지성(mind)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쉐퍼 박사는 이러한 사상이 중세와 르네상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이분법적인 사고관으로 발전했고, 사람들은 이성과 비이성 사이에 깊은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현대 문화에서 ‘행복’은 비이성적인, 열린 세계, 정의되지 않은, 신비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비행복’은 이성적인, 닫힌 세계, 수학적, 기계적, 체계적으로 정의, 현실적인 것에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미술, 음악, 일반 문화, 신학에까지 영향을 미쳐, 현대인들은 이성적인 하층부에서 비이성적인 상층부로 비약을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사고 패러다임(프란시스 쉐퍼)



르네상스와 현대의 최후의 만찬

르네상스 : 레오나르도 다빈치



원근법과 사실성이 있는 ‘최후의 만찬’

현대 : 살바도르 달리



비이성적인 상층부의 표현
제목은 ‘최후의 만찬’이지만, 내용은 인격적인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호한 표현

혼란한 세상 분별하는 지혜 성경에만 있어

프란시스 웨퍼 박사는 현대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다 보니, 결국 약물 사용과 같은 혼란과 무질서가 늘어나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조작과 통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정보와 소셜 네트워크가 넘쳐나는데, 이로 인해 비기독교인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시류에 저항없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때 웨퍼 박사가 세운 라브리 공동체는 기독교 세계관을 중요시하며,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에 마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 현 시대에, 젊은 세대가 자신의 직업과 삶을 성경적이고 인격적으로 이해하며 의미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영락 교회에서도 특히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프란시스 웨퍼 박사가 제시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적극 초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만남**



'하늘가족'을 아십니까

하늘 소망 품은 하나님의 자녀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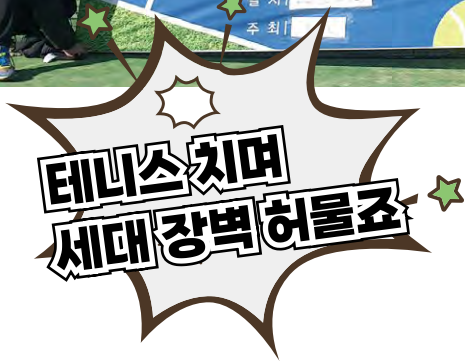
매월 셋째 주일 음식 나누며 고민 공유

'하늘가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영락교회 아동부에는 '하늘가족'이 있습니다. 하늘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하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소년부에서는 매월 셋째 주일에 교역자와 함께하는 하늘 가족 모임을 진행합니다.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며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늘가족 모임을 통한 교사들의 친밀도 향상과 함께 소년부 어린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 정보들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든든한 가족 생겨 행복합니다

아래는 소년부 정희라 선생님의 하늘가족 후기입니다. (사진 속 오른쪽 세번째가 정희라 선생님)

3월 17일에는 예배를 마치고 소년 1부 5학년 하늘가족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에는 반 아이들을 섬기느라 주변을 많이 둘러보지 못했는데, 여러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각자 경험한 은혜를 나누면서 교사로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향한 신뢰가 향상되어, 앞으로 더 힘차게 주님을 향해 FLY할 수 있겠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식탁 교제 시간은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즐거웠고, 이후에는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질문지의 답을 나누면서 서로에 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 알기 어려운 일상의 고민이나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든든한 가족이 생겨 행복합니다. **안남**



지난 2년 동안 영락교회 청년부 YTC(Youngnak Tennis Community)는 매년 봄·가을에 장년부 영락 테니스회와 정기적으로 테니스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YTC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청년들이 모여 테니스 운동을 통해 연합하는 활동부서입니다. 처음에는 청년부 소규모 모임으로부터 시작한 활동부서였습니다. 하지만 영락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다 보니 더이상 청년들끼리의 모임이 아닌, 장년들과 함께 운동하며 삶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아리의 개념으로 모여 공동

체를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나 사회 안팎으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세대의 갈등과 단절이 연령 불문하고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할 수 있는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통해 함께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장년, 청년

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유지해 온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지만 귀한 마음을 보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년과 청년이 하나 되어 화합하고 연합해가는 모습은 장년들의 배려와 헌신 그리고 청년들의 섬김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니스를 통한 친목과 연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년과 청년 간의 두터운 세대 갈등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이슈이므로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여가기에 이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의 이유는 모든 사회에서 각기 고유한 가치관, 신념, 경험을 가진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공존이 지속되면 여러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각 세대의 문화, 기술 발전, 경제적 격차, 그리고 외부 및 내부의 다양한 요인이 드러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을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신승원 집사
청년부 YTC 회장

장년부와 매년 봄가을 정기대회 개최
배려와 헌신, 섬김과 열정으로 화합
예수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은혜 실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21)"

세대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도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장년, 청년, 너나 할 거 없이 세대 갈등과 단절의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신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락교회라는 틀 안에서 서로의 모습과 상황을 직면하여 이해하고 바라봐 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해와 배려는 전 세대가 겸비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영락교회 장년부 테니스회와 청년부 YTC의 연합은 세대를 아우르는 힘이 있어 먼저 손 내밀어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함께 운동하며 삶을 나누고자 하는 장년들의 배려와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

고 이 시대에 기둥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이신 장년들의 지혜와 기도,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연결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 또한 예수님의 흔적과 발자취를 따라 청·장년의 화합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은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세워 가기 위한 끊임 없는 중보자의 역할로 올바르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교회와 세상, 그리고 장년과 청년 그리고 다음세대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테니스 활동과 부서 모임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닌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틀어진 세대 간의 갈등과 관계가 연합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하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남**

읽고...뛰고...오르고...함께해 선을 이루는 fun한 청년들

독서모임



책으로 친해지는 곳 서로의 사유를 공유

독서모임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의 공동체를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모인 활동부서입니다. 소설, 에세이, 기독교 서적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접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 회장 박석영

YBC

Youngnak Blue FC



축구하는 믿음공동체 선한 영향력 전합니다

영락 Blue FC는 육과 영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활동부서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축구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 팀장 서동현, 부팀장 원창진

**YCC****Youngnak
Climbing Crew**

영락이여 올라가라 클라이밍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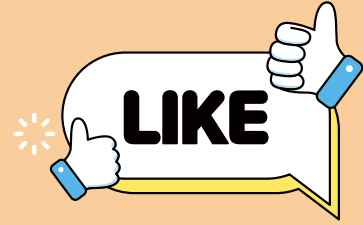
YCC는 영락교회의 형제자매들이 클라이밍하며 교제하는 활동부서입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신체를 도모한다는 비전아래 현재는 서울 시내에 있는 클라이밍 센터에서 실내 볼더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락이여, 올라가라' 표어에 발맞추어 5월에 북한산 인수봉을 등반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 인수봉 등반 지도편달 가능한 선배님들께서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YRC****Youngnak
Running Crew**

교회로 좀 더 깊숙이 청년들이여 달려보자



영락 러닝 크루는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교회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오길 바라며 달립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 된 교회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달리며 몸과 마음을 건강히 가꾸고, 주님과 교회를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공동체입니다. 러닝 크루는 100km를 달릴 때마다 봉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달리는 청년들이 강건해지고, 아울러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힘쓰고 있습니다.



YTC Youngnak Tennis Community

테니스 치는 청년들 다음세대로 무력무력



YTC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청년들이 테니스를 통해 연합하는 활동부서입니다. 매주 서울 근교 테니스장에서 모임을 갖고 다양한 대회나 MT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영락교회 장년들과 청년들이 하나 되는 영락 테니스 대회가 그중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부족한 없는 청년부 YTC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회장 신승원



M&F Mission & Fun

즐겁고 재밌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요



M&F의 목적은 즐겁고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각종 이벤트와 연주회 관람 등 다양한 문화생활 체험과 동시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 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문화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영락교회에 가면 즐거운 일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도록 '즐겁고 재밌는 교회'를 위해 함께 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딸! 미안혀, 주님 기쁘시게 하고 얼른 하늘나라 네 옆으로 갈게"

81세 이양례 은퇴집사의 교회 봉사 오는 길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반,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에 서둘러 집을 나선다. 버스 한 대 놓치면 2~30분, 하지만 그저 감사하기만 하다. 이전에는 버스를 여러번 갈아탔지만, 작년에 새로운 직행 버스 노선이 생겨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지. 나 같은 죄인이 무얼 한 게 있다고 버스를 이렇게 코앞까지. 그전엔 몇 번씩 갈아타고 갔는데"

그렇게 대화역에 도착하면 다시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향한다. 작년에 수술을 받아 아직도 허리가 빠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청소 봉사에 열심히 참여한다. 자리를 잡자 언제나처럼, 이내 가방을 열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말을 건넨다. "지금 교회 가는 중이야. 오늘은 청소하는 날이야. 너도 알재? 엄마는 네 옆에 갈 때까지 열심히 교회 마당 밟을꺼. 그래야 숨을 쉴 수 있당게... 주님 기쁘시게 하고 얼른 네 옆에 갈게. 미안혀..."

'청소 봉사 가는 중' 딸에게 휴대폰 독백

어느새 눈가에는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미안혀. 미안혀. 미안혀"



올해로 3년 차,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청년부에서 봉사 팀장으로 열정을 다해온 딸이 갑자기 다리가 부어오르더니 불치병 판정을 받았다. 수술 후 겨우 3개월이 지난 뒤, 갑자기 하늘나라로 부름받았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온 후 밤낮없이 생사를 건 지극한 간병 덕분에 처음에는 의식이 거의 없던 딸이 조금씩 회복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 시름 놓여 큰딸과 교대하고 집에 돌아온 날, 딸은 그 밤을 넘기지 못했다. 자정이 다 될 무렵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에 달려가고, 얼마 후 딸은 차가운 주검으로 변했다. 절절하게 울부짖었고, 어떻게든 함께 죽고 싶었다. "미안혀. 미안혀. 미안혀" 끝도 없이 목놓아 울었다.



불치병에 스러진 딸 붙잡고 목놓아 울다

하늘로 먼저 보낸 딸은 1남 2녀 중 둘째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간호대학을 나와 병원에서 일하며 가정을 도왔다. 또한 열심히 공부하여 신학교를 졸업했고, 청년부에서는 봉사팀장을 맡아 잡채를 100인분씩 해 가는 등 남을 돕기를 좋아하던 딸이었다. 결혼하지 않고 평생 고생하는 엄마와 함께 살겠다며 임대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고, 모델하우스를 보러 간 날은 너무 마음에 든다며 뿔 듯이 기뻐했던 딸이었다.

그러나 딸은 결국 함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다. 5월에 딸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6월에 입주하던 날에는 구석구석마다 보고 목놓아 울며 딸을 그리워했다. 2021년 5월 19일에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딸의 생일인 9월 10일에 장미꽃 50송이와 케이크를 들고 영락동산을 찾았다. 딸은 자신이 갈 길 미리 알았는지, 생전에는 안하던 행동을 했다. 떠나기 한 해 전, 딸은 자신의 생일에 가족들을 초대해 병원 근처 원룸에서 함께 식사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차려 베푼 생일상이었다.

모진 세월 아궁이 연탄 아끼며 예배·연보 챙겨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결혼해 서울에 올라온 뒤 불신자였던 남편과 결혼 후 일가친척 아홉 식구를 섬겼다. 첫 아들을 출산한 후 3일 만에 그 아이를 잃은 뒤, 다른 아이 둘을 낳을 때까지 남편이 벌어들인 돈으로 무섭게 절약하며 살았지만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연보했다. 남동생이 서울에 오면서, 아이들 자리의 아궁이 쪽만 연탄을 땔 정도로 절약을 하며 신학교 교육을 받게 했다. 결혼 13년째 되는 해, 남편이 풍으로 쓰러져 가장을 맡아야 했다. 야쿠르트 판매원으로 시작해 화장품 외판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활했다. 7년 전까지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강남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충실하게 봉사하고 기도했다. 이처럼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신앙으로 버티며 힘겹게 살아왔다.

예수쟁이 핍박하던 남편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

그동안 교회 나간다고 매일 살림을 부수며 핍박하던 남편은 어느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며 영락교회를 따라왔는데, 그날 환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남편과 14년 전에 사별하고, 직접 공부시켜 목회자가 된 동생을 10년 전에 천국으로 보냈는데, 딸 마저 먼저 보내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다. 영락공원 7단지에 묻힌 딸, 혼자서 찾아갈 수 있다면 매일 그리움 속에서 딸을 찾아갔겠지만, 자식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갈 수 없는 현실이 더욱 슬프고 어려웠다. 이후 2년 동안 매일 눈물로 고통을 견디었다. 딸을 잃은 슬픔과 자신이 딸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가슴을 저미는 아픔은 더해져 갔다.



평생 아등바등 사느라 제대로 봉사 못해봐

“지금이 제일 행복하지. 평생 먹고사느라 제대로 봉사하지 못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마당에 발을 디뎠다. 교회에 안 가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아버지가 계신 집, 교회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어디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봉사하고 싶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식당 봉사였다. 하지만 그곳도 70세까지만 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마침내 찾은 곳이 자원봉사부 교회 청소와 중보기도대였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본당 2층 계단부터 지하 주일 중보기도실 계단까지 혼자서 2~3시간 동안 청소를 한다. “힘들지 않으세요? 왜 혼자 하세요”라 묻는 질문에 “주일 중보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계단을 내려가는 곳조차 몰랐어요.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지. 코로나 때는 계속 못하다가 코로나가 끝난 후 주일에 중보기도하러 내려가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지. 내가 죽으면 그때는 누군가 할거예요”라고 대답한다.

청소와 중보기도대 봉사...지금이 제일 행복

교회에서 청소와 주일 중보 봉사를 하던 중, 최근에는 기도 훈련을 받아 현재 매주 2시간씩 평일 영락기도대에서 릴레이 기도방을 채우고 있다. 언제든지 사정이 생기면 이야기하라며 시간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오가는 시간만 5시간, 월요일 아침 9시까지 기도방에 도착하려면 6시 반에 집을 나서야 한다.

봄이 시작되면 교회의 화단에서 물을 주고 풀 뽑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인사하러 다가가면 말소리가 들린다. “그들도 잘 있었냐. 그들도 있으니 벌도 오고 나비도 오고 잠자리도 오고 너무 좋다. 물 잘 줄 테니 햇빛 받고 잘 살아라”

어떻게 꽃 가꾸실 생각을 하게 됐을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러다 교회에서 꽃을 가꾸고 풀을 뽑으며 시간을 보내니 마음을 잡을 수 있었지. 그리고 그곳에서 교인들이 사진을 찍는 것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작년 추석에는 자녀들에게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둘러대고, 마음먹고 교회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화단을 가꾸었다. 주중에 화단을 가꾸다 보면 간섭이 많아 일보다 더 힘들었기 때문이다.

작년 9월에 허리 수술을 한 후부터 화목 청소는 그만두고, 올해부터는 주일예배와 주일중보기도, 평일중보기도, 수요일배, 금요 북한기도회, 토요일 청소를 위해 교회에 나온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올해 81세, 영락교회 출석한 지 44년째. 예배 시간이면 단정한 모습으로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시간 내내 미동도 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만 집중한다. 그녀를 바라보는 이들도 진지해진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88장 가사에 어느새 눈시울이 촉촉해진다. 오늘도 사랑하는 딸을 만나게 될 소망을 꿈꾸며 성전 트랙을 밟는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만남

취재 | 인미 기자

93세 호흡이 다할 때까지 말씀과 동행하신 성도님!

이아미 권사 _ 용인·화성교구 29구역장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최삼숙 성도님! 언제나 활짝 웃는 얼굴로 "권사님~ 많이많이 사랑해~" 늘 고백해 주시던 성도님. 이제 그 빈자리가 너무 그리웁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살자”던 모습 눈에 선해

어려운 투병 중에도 성실하고 깨끗하게 말씀과 동행하시며 죽음의 권세에 놀리지 않으셨던 성도님, 기도와 말씀으로 견여내시는 모습이 귀감이 됐고 아름다웠으며 닳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 오이코스 말씀 묵상하시고 인지공부, 노래 교실 등으로 열심히 활동하신 성도님은 저녁이면 반드시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주일예배 다녀오시면 목사님 말씀 어찌 그리 좋으시냐며 함박웃음을 지으시고 은혜받았다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왼쪽 첫 번째가 필자, 오른쪽 세 번째가 최삼숙 성도

하늘나라 우등생 최삼숙 성도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신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 그 신앙을 닳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삶, 따듯했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많이 많이 사랑해~' 말씀하셨던 성도님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2024년 3월 23일 이아미 윤영

자녀가 없으신 성도님은 10년 전 남편분이 세상을 떠난 후 수원에 있는 노블카운티에서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대장암 말기로 5개월밖에 못 사실 것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1년간량을 말씀 목상을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아무 걱정 없다며 기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건강이 악화하여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석 달을 링거만 꽂으신 채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하셨던 요양병원에서의 침상 생활, 면회도 안 되는 외로움과 고통, 두려움의 투병 중에도 말씀 묵상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안정을 찾으신 성도님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 오이코스를 하시면서 정리하신 묵상노트를 구역장인 저에게 메시지(오른쪽)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우등생 성도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돌아가시기 나흘 전쯤에 작성하신 마지막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콧줄을 했고, 힘이 없어 앓을 수도 없고, 배도 너무 아파 더이상 묵상을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렸습니다. 하늘나라 우등생 최삼숙 성도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신 모습을 그려봅니다. **만남**

2024년 1월 18일(목)

함께하는 말씀 산책 성경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병원입니다.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소원입니다. 하늘 가는 길이 참 힘듭니다. 박용준 목사님께서 아침에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2024년 2월 12일(월)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연약하고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정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자. 실천하는 성도가 되자고 다짐한다. 권사님 참 힘듭니다. 미약한 나는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이 사랑합니다.

2024년 3월 5일(화)

이 세상에서 가장 끊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랑 속에서 산다. 바울은 고난 당해도 주님을 사랑했다. 가장 아름다운 주님 사랑 가득하게 살자.



지도자양성 훈련센터를 통해 3명의 현지 전도사를 배출하고 3개의 개척교회를 세웠다 1 개척교회 1호 '복의 근원 교회' 2 개척교회 2호 '빛 교회'

V국 찾아온 친정 같은 영락식구들

영락교회 선교부의 방문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어쩌면 긴장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나를 믿고 지금까지 V국 선교를 위해 함께 수고하며 헌신한 나의 친정 식구들이기에 마음이 설렌다.

선교현장 격려...내게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방문

인천공항에서 V국 하노이 공항까지는 비행기로 고작 4시간 정도면 닿는 거리이다. 그동안 여러 팀이 이곳을 다녀갔지만 이처럼 친정 식구 모두가 함께 방문한 적은 없다. 선교부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장님, 차장님 그리고 팀장님, 거기다 3여 중앙회 임원까지 선교지를 함께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나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방문이 평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뛰는 나에게서는 너무나 귀한 방문이고 소중하

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회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다. 선교지에서 10년을 훌쩍 넘겨 V국 13년 차가 되니 이런 변화가 특히 더 와닿는다. 때문에 짧은 방문이었지만 이렇게 친정 식구들이 방문하여 나의 사역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시간이 나에게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위로로 다가왔다.

선교13년 차...V국 이꼴 새싹들 무럭무럭

그동안 V국에서 12년 넘도록 하는 사역은 현지 청년들을 훈련해서 미래의 교회지도자와 사회지도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일이다. 이제 13년 차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지도자양성 훈련센터(MD.DCT)를 통해 훈련받고 졸업한 사역자들이 13명이나 된다. 그중에 3명의 현지 전도사를 배출하



3 개척교회 2호에서 말씀 선포 4 현지 교단 총회장님의 격려 방문

여 3개의 개척교회를 세웠다. 그 외 졸업생들도 현지 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그리고 교회 핵심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앞으로 20년 후 이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사역할 것이다. 현재는 새싹으로 자라가고 있지만 20년 후에는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 사역이 미래 V국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받으실 영광

센터에 감사한 일도 있었다. 13년 차에 들어선 지도자양성 훈련센터가 우리만의 훈련센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지 교단에서 지도자양성 훈련사역을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총회장님이 이곳을 방문하셔서 훈련생들과 졸업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 일도 있었다. 첫 훈련센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자그마한 공간에서 현지 청년과 성경공부와 언어공부를 서로 주고받으며 시작한 작은 모임이 어느덧 건실한 훈련센터로 성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지도자양성 훈련생들에게도 격려와 도전

이번 친정 식구들의 선교지 방문은 지도자양성 훈련센터의 훈련생들에게는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다. 현지 청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영적 디딤돌과 같은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친정 식구 방문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 아니라 오신 모든 분에게 귀한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꼭 선교지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만 사역이 아니라, 이처럼 방문해서 현장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며 현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선교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교사역이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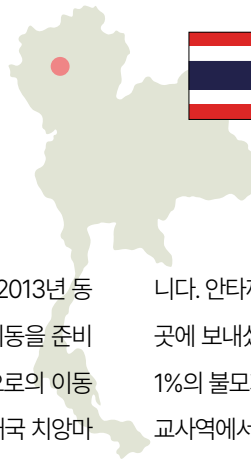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다시금 방문해 주신 나의 친정 식구인 영락교회와 선교부, 그리고 3여전도회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날**

고재영 선교사



남푸헝치윗교회 나따간 목사님과 함께. 뒷줄 왼쪽 두 번째가 주시원 선교사. 오른쪽 사진은 남푸헝치윗교회 전경

태국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Thailand Chiang Mai

태국 사역지로 건너온 지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 동북아 C국에서 추방당하기 전, 마카오로 선교지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교부에서 태국으로의 이동을 요청하였고,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흔쾌히 태국 치앙마리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뜻과 상반된 이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제2의 사역지로 정하셨는지는 오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화율 0.7% 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태국 선교의 역사는 200년이 되어갑니다. 우리 교단도 1956년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최찬영 선교사를 시작으로 태국 선교에 동참한 68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가 이곳에서 애썼으나, 복음화율은 여전히 0.7%에 지나지 않습

니다. 안타까운 심정의 하나님은 그런 연유로 우리 가족을 이곳에 보내셨단 마음이 듭니다. 예전 동북아 C국도 복음화율 1%의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교사가 중심이던 선교사역에서 현지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도록 현지 목회자들의 의식을 바꾸는 선교 훈련사역을 일으켰지요. 이를 통해 현지 교회들은 '10만 선교사 파송'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자생적인 복음 전도사역을 통해 1억 3천만 명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선교의 트라이앵글 거점

저는 동북아 C국에서 현지 교회 목회자들을 교육했던 경험을 통하여 태국 교회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 태국'을 위한 태국 교회 목회자훈



후아이안린교회 타왓차이 목사와 함께. 오른쪽 사진은 후아이안린교회 전경

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역을 위해 여섯 가정이 한 묶음이 되어 함께 팀사역을 합니다. 태국은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산속까지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신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사역할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카스트제도가 뿌리 깊게 존재하는 현실에서도 시에 소수민족 교회를 개척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하지만 '카렌족', '아카족', '라후족', '타이아이족' 등의 소수민족들은 태국뿐만 아니라 M국, 라오스, 동북아 C국 등에도 거주하기에 지역을 넘어서 선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태국 밖에 있는 자기 민족을 품고 그들을 선교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태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적 교회 목회자훈련'은 너무나 필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북아 C국 이상으로 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동북아 C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추방이라는 아픔까지 주시며 태국으로 이동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인지 현재 목회자훈련에 참여하는 태국 교회 목회자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 중 한 분의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헌신하는 현지 목회자 가정 보며 깊은 감동

타왓차이 목사님은 19년 전 한 살 된 어린 딸을 안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깊은 산속의 라후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외지인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면서도 곳곳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섬겼지요. 그 마을에 들어간 지 1년쯤 지나 장인, 장모님께서 딸이 사는 집에 오셨다가 딸 가족이 사는 모습을 보시곤 마냥 눈물만 흘리다 내려가셨답니다. 목사님 내외는 부모님이 자신들을 바라보던 그 심정이 되어, 15살이던 결혼하는 산속의 아이들을 눈에 담습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교회로 모아 기타 연주와 드럼을 가르치고, 공부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을 선별해 도시로 데리고 나와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공부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신앙공동체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만나 선교적 교회 훈련을 받으며 산속 아이들을 향한 사역의 비전과 방향성을 다시금 세워나가기 시작했지요. 지금은 9명의 학생이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의 대학에



사이판행치유포교회 우물개수 예배를 마치고. 오른쪽 사진은 사이판행치유포교회 전경

진학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타왓차이 목사님의 딸 칸와바가 치앙마이사범대학에 입학했는데,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자란 그 산속 초등학교에 교사로 가서 마을 아이들에게 태국어 가르치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태국어를 할 수 있어야 산 아래 도시로 내려와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아빠 품에 안겨서 산에 올랐지만, 이제는 제 발로 그 아이들을 위해 산에 오를 거예요”

그 아버지에 그 딸 아닌가요? 이제 저는 타왓차이 목사님과 함께 ‘옴꺼이’라는 마을에 교회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산 위, 3천여 명의 주민이 사는 지역인데, ‘후아이남란’ 지역처럼 기독교를 배척하는 지역입니다.

치유와 이적으로 ‘선교 태국’ 디딤돌 세워주세

선교적 교회 훈련에 참여하는 나타칸 목사님은 10년 전에 만났는데요, 자신의 비전은 평생 교회가 없는 마을 여섯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은 마을마다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교회 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

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교회의 희망을 품은 나타칸 목사님과 우리 팀을 통해 지금까지 교회가 없는 마을 세 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히 세 번째 세운 ‘사이판 행치유포교회’는 기독교를 배척하는 카렌족 마을에 세워졌지요. 이런 마을에 세 명의 기독교인을 시집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을 새로 세워질 교회의 디딤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위암에 걸린 아이가 기도로 완전히 낫는 경험을 한 일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곳곳에 남아있었죠. 그중 큰 문제가 교회 주변에 물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우물의 중요성을 작년 기도편지를 통해 말씀드렸지요. 그때 영락교회 권사님들을 통해 우물 파기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올 1월 말 한 주 동안 80미터를 파 내려가 드디어 우물을 뚫었습니다.

영락지체들과 우물 뚫고 감사예배 큰 위로

특히 이번에 선교부 김재완 장로님, 조두형 목사님, 손두상 차장님, 신동엽 팀장님 그리고 3여중양회 박정운 회장님과

임원들이 치앙마이를 방문해 주셔서 함께 '사이판 행치윳고 회-우물통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마을 구석구석까지 흘러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이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부의 방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우리 팀원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팀선교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모든 태국 교회들이 팀 사역을 통해 더 넓게, 더 다양하게, 더 강력하게 사역하는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팀선교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교입니다. 또한 성부·성자·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펼쳐가시는 사역의 영적 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향후 팀선교를 통해서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선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훈련·교회개혁 팀선교 씨앗 무럭무럭

많은 격려를 받은 팀선교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훈련과 함께입니다. 특별히 현지교회 건축을 위해 '153 후원회'와 협력하여 교회 건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53 후원회는 먼저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며 하루 153원, 그러니까 한 달 4,590원을 헌금하지요. 4,590원씩 한 분 한 분 눈물의 씨앗을 모아 교회 건축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현재 태국 지역 복음화를 위한 네 곳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훈련을 통하여 태국 교회가 해외선교를 감당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M국과 라오스 선교를 위해 '라오안교회(2021년)', '퐁파캄교회(2023년)'를 건축했습니다. 우선 미얀마·아카족과 '타이아이족' 목회자들을 태국에 모셔서 훈련한 후, 태국 교회와 M국 교회가 서로 선교 협력할 수 있게끔 준비 중입니다. 또한 태국 교회를 통해 라오스 '보케오지역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신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지닌 태국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선교 태국'이 시작됨을 느낍니다.

목회자 훈련공간, 쉼터 하나님께 간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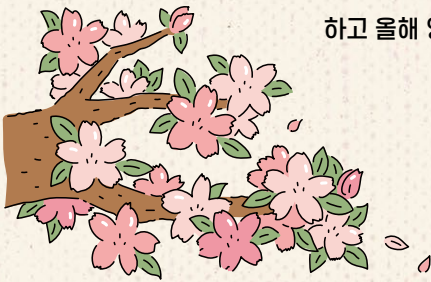
현재 치앙마이에서 '동북아 C국 목회자훈련'과 '태국 목회자훈련'을 하며 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빌린 태국 교회에서 훈련하는데, 일단 숙소가 없고 훈련 공간이 협소한 데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예로 목회자 30여 명이 두 개의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 그야말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잠시의 휴식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숙소로 이동하느라 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함은 물론이며, 먼 곳에서 오신 현지 목회자들에게 고단함을 안겨 드리는 것 같아 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자훈련, 선교사훈련 그리고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의 쉼을 위한 공간을 이곳에 건축하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적하게 배우고 평안히 쉬는 모습을 매일매일 꿈꿉니다.

지난 23년간의 선교사역을 되돌아보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주시원' 이름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교사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도님들의 중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뜻만을 새기며 조용히 걸어가도록, 부족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우리 팀과 현지 사역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남**

주시원 선교사

교사를 목회자로...천직 주신 뜻 작은 믿음이지만 부르심에 순종

새가족부와 전도부(주중 사역)를 섬기고 있는 이태규 전도사입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작년 2월 신학교를 졸업
하고 올해 영락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고교 교사하며 행복한 나날

대학을 졸업한 2007년부터 12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교직은 저에게 천직(天職)이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삶은 가장 큰 행복을 선사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교직 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지인에게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출근하면서 가끔 내가 일하러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진짜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했다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 교직 생활이 노동이 아닌 놀이처럼 느껴질 만큼 즐거웠단 의미입니다. 학생들과 어울리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좋은 수업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 새마음을 다졌고 운동량이 부족한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마다 운동한 적도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야외로 나가 신나게 놀며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로부터 “열정 과잉의 괴짜 선생님”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도 힘들다 여기지 않을 만큼 참으로 행복했던 교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이태규 전도사
새가족부
전도부



목회자의 길로 부르신 듯 알지 못해 눈물

그러나 저의 교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정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던 날, 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대아 우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시절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부르신 길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조각 아닌 완전한 진리 가르치라는 소명

목회자로서 이제 막 걸음마를 댄 시기이기에 저는 여전히 이 길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교사로서의 삶을 그만두라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교사가 되도록 저를 이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조각 진리를 가르치는 데 만족하는 교사였다면 이제는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는,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는 교정을 떠나며 흘려야 했던 눈물을 거둬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교직을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한 교사가 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나의 교사 되신 예수님, 그 뜻을 향하여 달려 나가겠습니다. **만남**

날마다 신앙 성찰... 거듭나는 삶



한경직복음학교 4월 27일 2차 개강

한경직복음학교는 한경직 목사의 삶을 모델로 21세기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성찰하고, 새로운 복음주의적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커리큘럼은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제1영역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나’라는 인간을 이해하고 되돌아보는 시간, 제2~4영역은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맺어가는 관계 세 가지, 즉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 그리고 나와 자연으로 구별하여, 한경직 목사의 생전 설교와 특강, 증언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선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과정은 소그룹 모임을 통한 영성 나눔과 온라인강의, 영성·묵상일기(워크북 제공)를 통해 매일매일 신앙을 성찰하고 삶의 다짐으로 발전시키며 이루어 집니다.

차수별 일정 (분기별 1회)

차수	모집	시작	종료
2차	4월	4월 27일(토)	5월 25일(토)
3차	8월	8월 31일(토)	9월 28일(토)
4차	10월	11월 2일(토)	11월 30일(토)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차수별 최소 인원은 20명으로 진행합니다.

한경직복음학교는 개강 2주 전부터 주보에 안내되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전화 02)2280-029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기도...일상에 영건을 채우라



이정애 은퇴권사
고양·파주교구

무기력한 일상...예배·기도 간절함 없어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한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다. ‘한경직복음학교’에 신청하라는 광고를 보며 매번 목멘 소리로 말씀하셨던 한 목사님이 생각났다. 어느덧 타성화된 신앙생활, 경외로움도 간절함도 없는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 그 자체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무료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기가 되어 한경직복음학교에 신청했다.

날마다 하루의 삶 반추하며 하나님과 대화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워크북을 받아 집에 와서 펼친 첫 페이지에서 ‘순례자의 생활’을 보고 분주한 일상에 잃어버린 나를 발견했다. 저녁마다 그날 하루의 삶을 반추하면서 질문에 답을 써 내려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힘이 들고 시간이 늦더라도 그날의 몫을 빠지지 않

고 묵상하려 애썼다. 그 옛날 예수님 닮게 해 달라고 기도드리며, 한경직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다짐하곤 했다.

두 번째 주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란 주제로 8일 차에 들어서면서 지금껏 40년을 넘은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나름대로 성경공부와 기도와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왔지만, 요즈음 오이코스를 하루도 미루지 않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없음에 부끄러움만 남았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목사님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모습, 항상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말씀, 언제나 겸허하게 청빈을 그득 채우셨던 모습과 강하게 외치셨던 민족사랑, 무엇보다 반공을 부르짖으셨던 그분을 닮겠노라고 욕심냈던 나의 자그만 모양새를 알게 됐다.

내 손은 정말 봉사·청결의 회개한 손일까

세 번째 ‘나와 이웃,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에서 ‘예수님의 손’이란 주제가 인상 깊었다. 특히 “손이 회개해야 합니다. 손이 보혈로 씻음받아야 합니다.



손이 거룩해져야 합니다”라는 단락이 눈에 들어왔다. 나의 손은 봉사의 손, 정결의 손, 주님과 같이 희생의 손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일찍이 한 목사님의 사랑의 마음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해 시설을 세우셨다. 사랑의 행위에 익숙하지 않은 내가 오래전 애니아의집에서 잠시 봉사했던 기억이 났다. 비록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티 없이 맑았던 그들의 눈동자가 생각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였을까?

마지막 네 번째 ‘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청지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영성일기 쓰기가 부담되기 시작했다. 한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 계단을 내려오시는 시신을 보던 날, 김응락 장로님 비석 앞에 무릎 꿇고 한 목사님께 갑절의 영성을 주시어 민족복음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했던 나의 엄청난 도전에 한없는 부끄러움만 남았다. 26일째 일용할 양식 부분에서 잠깐 30장 8절 아굴의 기도를 일상으로 삼고 살아온 내게 서울의 한복판에서 굶어 죽은 탈북자유인 모자의 모습은 너무 마음 아팠다. 그날 이후 탈북자유인에게 혼나기를 몇 번인가? ‘기독교인이라면서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서요?’ 부끄러웠다. ‘한 목사님이 하셨던 일을 조금만 더 했더라면 이런

게 모자가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많이 울었다. 목상도 되지 않았다.

남겨줄 건 없지만 예배만은 잘 드리고 싶어

마지막 책자 부분 ‘자녀에게 줄 유산’을 목상할 때는 만감이 교차했다. 신명기 6장 4~7절 말씀이었다. 내가 자녀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릴 때마다 자주 인용하면서 아무것도 남겨 줄 것 없는 나는 예배만 잘 드리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해 왔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의식이 소생되며, 생명 되신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목사님 유교의 말씀이 생각났다. 한경직복음학교를 잘 마친 나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했다. 끝으로 나이 많은 나를 보듬어준 조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짧은 기도문으로 체험의 글을 마친다.

기도문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락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생명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락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락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기름 부으사 한 목사님이 남기신 사랑과 절제와 청빈과 민족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남**

“네가 어디 있느냐?”



이나리 성도
청년부

도전 앞두고 하나님의 지혜 구하고자 신청

올해 초, 저는 변화에 대한 계획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깊이 집중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1월경 한경직복음학교 개강 소식을 주일예배 광고에서 접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주간 집중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기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과정이 시작되고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교재를 받았는데, 기신자는 물론이고 새신자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콘텐츠가 재미있고 유익해서 5주가 금방 지나가 아쉬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조별 나눔이 있었는데, 조별 나눔 시간은 전도사님의 인도 아래 성경 말씀이나 신앙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한 느낌으로 함께 나누었

습니다. 4조를 맡아 헌신하여 조원들을 품고 이끌어 주신 이예찬 전도사님과 조를 섬겨주신 구성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친필 말씀 서체 보고 미술학도로 진솔함 느껴

저는 개인적으로 한경직복음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매주 강의와 말씀 묵상에서도 그랬지만, 한경직 목사님의 정신과 신앙관을 체감하여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전시관 탐방이었습니다. 전시관의 여러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미술을 전공한 탓인지 한경직 목사님께서 친필로 작성하신 창세기 3장 9절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 서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실제로 뵈는 적이 없지만, 친필 서체를 보았을 때 겸소함이 묻어나며 꾸밈없고 진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 선한 뜻 전적으로 믿어야 참 평안 얻어

저는 1주 차 교육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주

제에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3일 차 내용에서 마음의 평화, 참 평안, 참 평화에 대해 많이 묵상했습니다. 오늘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평화를 누리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평안의 마음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 제가 어디 있는지 물으셨고 관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이 옳은 관계를 맺어야 하며,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옳아야 하며,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2주 차 주제인 ‘하나님과의 소통’ 내용을 더욱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 및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나, 나 자신, 우리(이웃 간) 소통,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은 주님의 선한 뜻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참 평안과 관계 있다는 것을 묵상하며 많이 은혜받았습니다.

이웃 섬김, 복음 전도 고민해 본 귀한 시간

교육내용에서도 이웃사랑과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과 역할에 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며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핵심 중 하나인 이웃 섬김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4주 차 ‘일용할 양식’의 주제 나눔 중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각에서 이웃과 무엇을 함께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육신이 바로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나’에게만 한정된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라는 이름으로 족한 양식을 구하고 기도(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경륜이 담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이 저에게 청지기로서 허락하신 족한 양식 이외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복음 전도와 연결하여 깊이 고민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한경직복음학교를 통해 기신자는 신앙생활을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신자는 영락교회를 이해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번 한경직복음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의 점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깊이 새기게 됨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시며 끊을 수 없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복음 전도와 하나님 사랑 실천을 위해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만남**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심을 얻게 하소서

- 불면증을 이기는 기도 중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평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이 차분해지게 하시고
편안하게 누워 단잠을 자게 해주시옵소서.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실 단잠을 느긋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품에 안겨서
진한 사랑을 느끼며 잠이 들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단잠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장재기 목사 『따라하는 기도』 중에서

시련을 축복으로...회복탄력성의 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개인이 어려움, 스트레스, 외상과 같은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잠시 힘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나 이전처럼 적응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고윤숙 은퇴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힘든 일 부닥쳐도 훌훌 ‘마음의 땀집’

회복탄력성은 크게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그리고 긍정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능력이란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감

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어 대인관계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통제력이 높으며,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줌으로써 강한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좌절이나 실패를 잘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 노력에 좌우

회복탄력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교육, 경험, 문화와 같은 외부환경이나 개인의 노력 등 내부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직면한 문제를 없앤다기보다는 수시로 변화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 알아본 결과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반면,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도 우울해하고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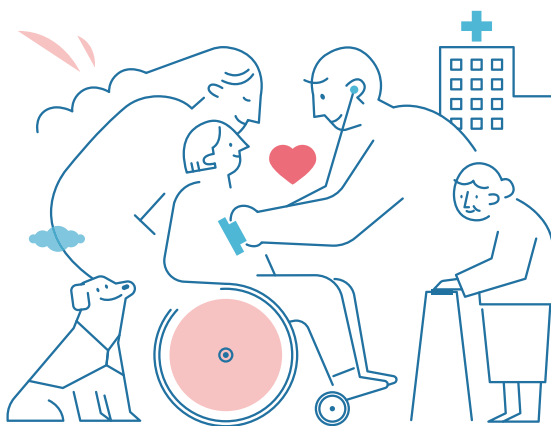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실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선하려 합니다. 이들은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필요한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즐길 줄 압니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변화나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불안감이 높으며,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상 후 장애 아닌 성장의 계기로 바꾸는 긍정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반대로, 어려운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외상 후 성장(PTG, post-traumatic growth)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충격을 겪은 뒤, 단순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긍정심리학적 관점의 회복탄력성은 이러한 성장을 통해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PTG 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을 통해 외상 전의 기능이나 적응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물론, 오

히려 외상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심리적인 성장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외상 후 성장은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어려움에 보다 잘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에는 외상경험으로 인한 혼란과 공포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



에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찾으려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되고 자아정체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새로운 목표와 야망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되며, 외상적 고통을 겪은 경험이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탄력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외상 후 성장은 모든 사람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위기 이긴 경험이 스스로를 더 강하게 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려움이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앞으로 마주칠 문제들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준비시켜 줍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회복력이 커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되며, 이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 많은 이가 처음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성장하고 기능수준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 찾아내기, 성격 강점 활용, 올바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관계 강화 등으로 회복탄력성을 키워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남**

부활, 생명의 복음! 부활주일에배와 음악예배 드려

예배위원회·음악부

부활주일을 맞아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주일에배와 음악예배를 드리며 예수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부활주일이었던 지난 3월 31일 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누가복음 24:36~53절 말씀을 바탕으로 '무서움에서 기쁨으로'라는 제목의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했다. 김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큰 기쁨의 삶을 누리며 담대한 전도자가 되자"고 전했다. 이날 오후 5시 찬양예배는 베다니홀에서 베들레헴찬양대(지휘 백정진, 오르간 김 진)가 주관한 가



운데 '2024 부활절 음악예배'로 열렸다. <사진> '말씀과 음악으로 드리는 부활주일 저녁기도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예배는 '알테 무지크 서울'이 협연했다. 바흐의 교회칸타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음악예배에서는 위촉 작곡을 통해 완성된 두 곡의 성가곡('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이 초연되어 새노래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했다.

가롯 유다를 통해 바라본 제자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목양부

고난주간을 맞아 교회와 성도들은 특별새벽기도회를 비롯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예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난주간이었



던 지난 3월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토요일은 6시 30분) 본당에서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다. '가롯 유다를 통해 제자도를 보다'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 김운성 목사는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도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다. 김운성 목사는 이번 고난주간이 그릇된 모습을 회개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고난주간 동안 우리 영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룩한 무언가에 도전하길 권하며, 성도들의 기도와 묵상에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권면했다.

중·고등부 학생 600여 명 참석 부활절 연합예배

중등부(부장 차남수 장로)와 고등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지난 3월 31일 부활주일을 맞아 중·고등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

다. 부활주일 오전 9시 30분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60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드리진 이날 연합예배에



서는 고등부 이영호 목사가 'Inner Peace (요한복음 20:19~23)'라는 주제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중·고등부 연합찬양대 칸타타와 문화선교부 뮤지컬 '구레네 시몬' 공연(사진)을 통해 중·고등부 학생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했다.

사순절을 더 은혜롭게...어린이들 세족식·세수식



아동부(유년·초등·소년부)는 사순절 기간 자체 제작한 (사뿐사뿐 묵상집)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필사했다. 또한, 지난 3월 10일(주일)에는 부서별로 주일 예배 시간에 세족식(洗足式)과 세수식(洗手式)을 진행했다. 세족식은 각 부서의 부장 장로들이 설교 시간에 시범을 보인 후 각 반 담임 교사가 어린이들의 발을 씻어주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

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설교 후에는 어린이들의 손을 씻어주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처음 경험해보는 세족식에 발을 보여주기 쑥스러워하는 어린이도 있었지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아이 우리 교회 보내기' 캠페인

교육부



교육부(부장 박홍준 장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학교 부흥의 분위기를 고취하고자 '우리 자녀 우리 교회학교 보내기'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늘어난 교회학교의 미출석자 학생들을 다시 초청하고,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회복이 더딘 교회학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의 특성을 고려해 부모와 조부모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할 방안을 계획 중이다.

캠페인은 새가족 등록을 미처 못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영·유아 가정, 학업 등을 이유로 교회학교 결석 자녀를 둔 부모님 그리고 장년예배만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펼칠 예정이며, 캠페인 영상·카드 뉴스 제작, 주일 예배 광고 시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캠페인이 가정 사역의 연장선까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어와나(Awana) 스타트

국제예배부

국제예배부(부장 정천우 장로)는 3월 15일 (금)부터 금요기도회 시간에 50주년기념관 301호에서 '어와나(Awana)'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어와나는 우리 자녀들이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며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팀워크와 신앙을 함께 키우는 과정이다. 어와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

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에서 첫 글자를 따온 이름이다.

우리 교회가 어와나를 시작하게 된 목적은 성장 과정에 있는 자



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훈련해서 국제화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로 키우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에 학부모들은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함으로써 온 가족의 신앙 성장을 돕는 데도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구역장으로 부르심과 섬김...신임 구역장 세미나

신임 구역장 세미나가 목양부(부장 정경섭 장로) 주관으로 지난 3월 3일(주일) 오후 3시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신임 구역장



5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목양부 이창조 목사가 '구역장으로서의 부르심', '구역장으로서의 섬김'을 주제로 구역의 중요성, 구역의 목적과 기능, 구역장의 자격, 사명과 역할 등을 설명하며, 구역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구역 식구들의 믿음 성장을 위한 동역자가 될 것을 권면했다. 이어 김모세 전도사가 '구역장의 실무 교육'을 주제로 심방보고서 작성, 금요권찰공부, 구역모임, 제직 추천, 심방, 부고 발생 시 위로 및 연락 등 구역장의 실무 역할에 관해 상세히 안내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직장인을 배려한 토요직장권찰모임 신설

목양부는 직장 근무 등으로 인해 금요권찰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 올해부터 구역장, 구역 권사 및 권찰, 부서 봉사자, 제직 후보 청원자들을 대상으로 토요직장권찰모임을 신설했다. 3월 9일(토) 본당에서 연합 개강예배로 시작된 상반기 토요직장권찰모임에는 197명이 참석했다. 박지운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개강예배에서는 목양부장 정경섭 장로의 기도와 권사회 찬양대의 특송에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4월 토요권찰모임은 6일(1~6교구), 20일(7~12교구), 27일(13~18교구) 오전 10시 30분에 교구별 장소에서 모인다. 한편 금요권찰모임은 3월 8일(금) 본당에서 연합권찰모임으로 상반기 일정을 시작했다.



평생대학 상반기 개강...올해 신입생 107명

친교부

친교부(부장 양성환 장로) 산하 평생대학이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지난 3월 6일(수)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상반기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1부 수요기도회를 마친 평생대학 학생들은 제2식당



에서 식사하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가운 대화를 나눈 후, 58개 반으로 흩어져 직전 주일(3월 3일) 설교 말씀을 주제로 교사들과 삶에서 실천한 내용을 나누는 공과 공부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박명일 전도사와 실버찬양팀의 체조와 찬양으로 시작된 개강예배는 양성환 장로의 기도 후 김충섭 목사가 '손을 대시며 (마태복음 8: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 학생들은 20개 반으로 개설된 동아리반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평생대학 신입생은 107명으로 총학생 수는 1,120명이다. 평생대학은 학생 수 대비 교사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관심 있는 성도들의 참여가 요청된다.

상반기 양육·훈련과정 개강...심화과정도 신설

제자양육훈련부

제자양육훈련부(부장 김병욱 장로) 상반기 제자양육과정이 지난 3월 10일(주일) 핵심 필수과정과 일반 성장과정을 필두로 일제히 개강에 들어갔다. 올해 개설된 제자양육과정에는 우리 교회 신앙성장 로드맵에 따라 5개 핵심 주제(성경/성령/예배/기도/전도)를 배우는 '2단계 양육 핵심 필수과정'과 성경에 대해 배우는 일반 성장과정, 주일 소그룹반과 소그룹 리더훈련, 그리고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일상 훈련과정과 일상 적용과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천을 겸한 '영락양육심화과정'을 신설하여 4월 중 개강할 예정이다. 제자양육훈련부에서는 수강 신청 기간 중 교회 내 모든 제직부서에서 실시하는 양육훈련 프로그램을 성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 책자 (나의 신앙

2단계 제자 양육 과정

- 상반기 : 3/10(주일)~6/30(주일)
- 하반기 : 8/4(주일)~11/24(주일)

5단계 심화 과정

- 영락양육심화과정

시간	반명	장소	강사	섬김리더
토요일 10:00~11:30	영락양육 심화	봉사관 505호	이후림	김재을

- 상반기 12주(4월중 개강)/하반기 8주

※ 자격(수강 기준): 2단계 양육 핵심필수과정(5과목) 수료

성장 열매 맺기)를 제공하여 성도들의 참여를 도왔다.

군부대에 부활절 기념 계란 전달



해마다 우리 교회 선교부가 실시하는 부활절 계란 기증행사가 지난 3월 27일(수)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보병1사단(육탄교회)과 양주에 있는 5기갑여단(여단본부 및 철풍사랑의교회)에서 있었다. 올해도 1남선교회를 비롯한 선교부 산하 자치단체의 모금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예수부활' 로고와 함께 예쁘

게 포장된 계란 2만3천개를 기증했으며, 한국국제기드온협회에서도 성경책 500권을 전달했다. 특별히 처음으로 방문한 5기갑여단에서는 여단장 김병기 안수집사가 반갑게 맞이해 주며 영락교회의 군선교와 장병 전도에 협력하는 부대가 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운성 목사, 공사 72기 기독교생도 임관감사 예배 설교

공군사관학교 제72기 임관감사예배가 우리 교회 선교부(부장 김재완 장로) 주관으로 지난 2월 28일(수)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구내 성무교회에서 열렸다. 졸업생도 44명과 재학생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감사예배에서는 김운성 위임목사가 '지킬 것을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영공 수호의 미래 주역들에게 신앙생활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선교부는 예배 참석자 전원에게 풍성한 식사를 제공하며 생도들을 격려했다. 이날 공사 교장인 공승배 소장은 군신앙 전력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하며 영락교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악기도처 찾아 북녘땅 바라보며 기도회 가저

북한선교부(부장 공수일 장로)는 지난 3월 9일(토) 교역자 3명과 임원 및 실행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환경개선공사 중인 송악기도처를 방문, 기도회를 가졌다. 북한선교부는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북녘땅을 바라보며 민족복음화의 사명과 복음통일의 비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송악기도처를 찾아 중보기도사역에 힘쓰고 있다. 북한선교부는 북한선교사역 활성화와 통일한국의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기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청년·대학생과 청소년들의 송악기도처 방문과 기도회를 추진하여 이들에게 전쟁의 역사와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향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뉴코리아국제학교 개강 감사예배

북한선교부 산하 뉴코리아국제학교가 지난 3월 5일(화) 봉수관 504호에서 개강감사예배를 갖고 상반기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강예배에는 자유인 학생 14명과 뉴코리아국제학교 교수 및 임원 16명이 참석했다. 뉴코리아국제학교는 자유인 청년들의 우리 사회에 성공적인 정착과 복음통일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매년 1학기(3~6월)와 2학기(7~12월)에 걸쳐 기독교 신앙교육과 영어 및 논술지도를 비



롯한 다양한 입시지도, 문화체험, 신앙수련회를 통해 성숙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있다.

사랑으로 함께 올라가자! 자유인예배부 수련회

북한선교부 산하 자유인예배부(부장 김철승 장로)는 '사랑으로 함께 올라가자'라는 주제로 3월 2일(토)부터 3일(주일)까지 대광고와 영락기도원에서 겨울수련회를 개최했다. 자유인예배부 청년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는 대광고에서

는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영락기도원에는 예배 순으로 진행됐다. 수련회에 참여한 자유인 청년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함께 올라가는 영락 여전도회! 연합수련회...선교사역 헌신 다짐

제1~4여전도회가 공동주최한 여전도회 연합수련회가 3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함께 올라가는 여전도회'라는 주제로 여전도회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린 이번 수련회는 장은희 권사(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시작하여 고은수 권사(2여전도회장)의 기도,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한은영 집사(4여전도회장)의 성경봉독 순으로 진행됐다. 수련회 강사로 강단에선 김운성 위임목사는 '〈나〉에서 〈하나님〉으로(고린도전서 15:9~10)'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지 않도록 늘 앞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욱더 선교사역에 헌신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여전도회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권면했다. 이어 여전도회 선교사역을 위한 봉헌 시간과 박정운 권사(3여전도회장)의 봉헌기도, 여전도회가 제창, 김운성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3·1절 105주년 기념예배

3·1절 105주년 기념예배가 여전도회 주관으로 지난 2월 28일 수요일부 기도회 시간에 열렸다. 장은희 권사(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기념예배는 고은수 권사(2여전도회장)의 기도, 한은영 집사(4여전도회장)의 성경봉독(디모데후서 4:1~8) 후 강승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3·1운동의 가치는 나라 사랑과 자유를 갈구했던 선조들의 용기였음을 강조하며 '3·1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운 권사(3여전도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 박민성 은퇴장로의 선창으로 만세삼창, 애국가 제창의 순서로 이어졌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3·1운동의 정신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함께 다짐했다.



13차 정기총회, 2024년 여성장학생 4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영락여성장학회

한경직 목사의 신앙유산을 계승하고 여성 목회자 양성을 위한 영락여성장학회(회장 김안순 은퇴권사)의 제13차 총회가 2월 28일(수) 오후 1시 선교관에서 열렸다. 임원 및 후원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경건회와 회무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나선환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경건회에서는 장학금 수혜자인 신학생 3명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감사 인사를 표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문경숙 권사가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 장학금 수혜자인 김예찬(장신대 신대원), 최연희(서울



장신대), 신주원(영남신학대), 리티엔원(송실대)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장승웅 은퇴안수집사,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위한 토지 기증

80주년기념사업회



장승웅 은퇴안수집사(마포·영등포교구)는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에 쓰이기를 바란다고 지난 3월 17일(주일) 재단법인 서울영락교회유지재단(이사장 이창선 장로)에 토지를 기증했다. 기증한 토지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산 20-8, 9의 2필지 토지 9,196㎡(2,781평)이다.

김경숙 권사,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제44대 회장 취임

김경숙 권사(강서·구로·양천교구)가 지난 3월 21일(목)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린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제100회 정기총회에서 4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김경숙 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년을 이어온 여전도회 회원들의 헌신과 사랑이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지교회 회원들과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2024년 산상기도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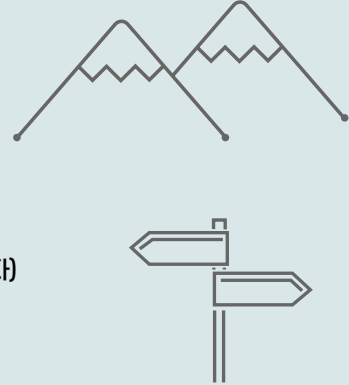


주제 : 회의에서 신뢰로!

기간 : 2024년 4월 24(수)~26일(금)

장소 : 본당

강사 : 임영수 목사 (前 영락교회 담임목사,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모새골' 설립자)



일정

구 분	4.24(수)	4.25(목)	4.26(금)
06:00~07:00	-	새벽예배	새벽예배
10:30~12:00	-	오전예배	오전예배
14:00~17:00	-	성경통독	성경통독
19:00~21:00	저녁예배(개회)	저녁예배	저녁예배(폐회)

설교자(강사) * 총 5회 설교

날 짜	구 분	본 문	제 목
4/24 (수)	저녁예배	히브리서 12:1~13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
4/25 (목)	오전예배	마가복음 2:1~13	두 차원(次元)의 진단
	저녁예배	시편 23:1~6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4/26 (금) 저녁예배	오전예배	시편 92:12~15	나이 둘과 익어감
	저녁예배	시편 31:1~15	나의 앞날이 주께 있나이다

* 강사 임영수 목사님께서 총 5번(오전 2번, 저녁 3번)의 설교를 진행하십니다.

* 새벽예배(2번)는 본교회 부목사가 설교를 담당합니다.



영락공원묘원 안내

최근 물가 급등으로 영락공원묘원 사용료가 상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장비 5만원, 동산관리비 5만원, 자연장비 10만원, 잔디보수비 1만원)



영락동산 사용료

※ 2024. 03. 11 시행

구 분	매장묘(비화장) (2인 기준)	가족묘(화장) (9인 기준)	자연장(잔디) (12인 기준)	비 고
묘지	무 료	무 료	무 료	토지 기증
매장 작업비(비화장)	900,000			재료비 포함
매장 작업비(화장)		200,000	200,000	재료비 포함
영락동산 관리비	300,000	300,000	100,000	
분묘 관리비(신장) (연 10만원*15년 선납)	1,500,000	1,500,000	300,000 (1회 완납)	
분묘 관리비(예초)	15년 경과 후 연 5만원 납부		무 료	연 3회 실시
묘테, 묘비(신장) (합장)	1,700,000 700,000	1,300,000 200,000	100,000	
사용료 합계(신장) (합장)	4,400,000 1,900,000	3,300,000 700,000	700,000	
개장 작업비	900,000 (비화장)	200,000 (화장)	200,000 (화장)	재료비 포함
분묘 잔디 보수료	90,000	90,000	무 료	

※ 자세한 내용은 법인사무실 02)2280-0157, 동산관리사무실 031)573-8123로 문의해주세요.





Lucia gives alms

1410, 자코벨로 델 피오레
(Jacobello del Fiore)

자선, 그 심오한 연민과 헌신

이 작품은 1410년경 자코벨로 델 피오레가 제작한 '자선을 베푸는 루시아'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시라쿠스 출신의 존경받는 순교자이자 성녀 루시아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루시아가 자선을 베풀기 위해 손을 내민 장면을 템페라(계란이나 아교질·벌꿀·무화과나무의 수액 등을 용매로 사용하여 색채가루인 안료와 섞은 물감)를 사용하여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작가의 섬세한 붓터치와 생생한 색채는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으며, 예술적으로 우수하고 종교적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심오한 연민과 헌신의 행위가 포착된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친절과 영적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2024년 4월호 통권 602호

발행 2024. 04. 0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독사 강승훈 / 편집인 김태영 /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이형일 조지형 소남호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윤영 류정현 안하윤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헌 /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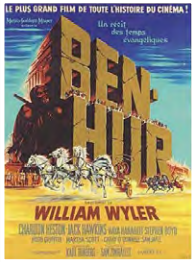


월간 「만남」 e-Book

영락시어터 4월 상영 영화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이번 달 영화 선정 기준은 성도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요청하신 것 중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던 영화 순위로 정했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에 맞추어 목사님 관련 영화도 포함했습니다.



벤허 (BEN HUR, 1959) 12 212분

7일(상), 14일(하)

감독: 윌리엄 와일러 출연: 찰튼 헤스톤, 스티븐 보이드, 잭 호킨스

서기 26년 로마 제국 시대. 유다 벤허(찰튼 헤스톤)는 예루살렘의 제일가는 유대 귀족이다. 어느 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데, 신임 총독과 함께 주둔 사령관으로 벤허의 옛 친구인 멧살라(스티븐 보이드)가 온다. 절친했던 과거와 달리 로마와 이스라엘이라는 적대적 상황에 의해 두 사람의 우정에 금이 간다. 신임 총독의 부임 축하 행진 중 벤허 여동생의 실수로 기왓장이 총독의 머리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멧살라는 무고함을 알면서도 벤허와 그의 가족을 반역죄로 몰아 체포한다. 어머니 미리암과 누이 티자는 감옥에 보내지고 벤허는 재산을 몰수당한 채 로마 함대의 노예로 끌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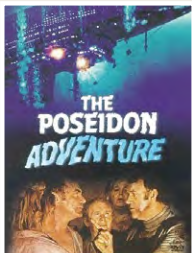


사랑의 빛이 된 한경직 (다큐멘터리, 2012) ALL 84분

21일

감독: 천정훈 내레이션: 정애리

그가 빛진 자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거쳐 질곡 같은 역사 속에 나라 잃은 겨레의 아픔을 눈물로 기도한 한 남자가 있다. 믿음이 척박한 땅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뛰어넘어 사회의 가장 큰 어른이자 소외된 이웃들의 울타리가 되고,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故 한경직 목사의 98년간 기적 같은 여정을 따라간다.



포세이돈 어드벤처 (The Poseidon Adventure, 1978) 15 117분

28일

감독: 로날드 님 출연: 진 핵크만, 어네스트 보그나인, 레드 버튼스

뉴욕에서 아테네로 향해 중이던 초대형 여객선 '포세이돈' 호가 한밤중에 일어난 해저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전복된다. 송년 파티를 즐기다 무방비 상태에서 대재난에 휩싸인 승무원과 승객 중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책을 찾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이때 스콧 목사(진 핵크만)가 좌중을 진정시키고 뒤집힌 선체의 위쪽을 향해 올라갈 것을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구출될 것이라며 움직이기를 거부한다. 스콧 목사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데리고 위쪽으로 향하자 곧이어 파티장은 바닷물에 휩싸이면서 남아있던 승객은 모두 수장된다. 이후 스콧 목사는 현명하게 무리를 이끌어 나간다.



자선을 베푸는 루시아

1410, 자코벨로 델 피오레(Jacobello del Fiore)

▶ 작품 내용은 68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